



대표기도

가족대표

하나님 아버지, 설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계 하셔서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2022년 한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신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한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직장을 돌보아 주시고, 자녀들의 진로를 인도하시며 모든 가족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이 흘러넘쳐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에스라 1장 1-5절

다 같이

1.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4.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 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5.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설교

다시 일어나는 새해

인도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랜 어려움의 시간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많은 부분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고난의 시기에 믿음의 연단을 이루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에 흔들려 신앙이 위축되고 침체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의 시작입니다. 오랜 포로기로 지나며 남유다의 백성들은 신앙의 회와 침체에 빠져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성전 재건이라는 회복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2022년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신앙의 침체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침체 속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1.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너무나도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고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권은 바벨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를 감동시키셔서 남유다 포로들을 귀환시키시며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코로나도 우리의 삶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회복의 시대를 여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2.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신다.

고레스가 남유다 포로들을 귀환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눈 앞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쫓아간다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남유다 포로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고레스를 통하여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였고 그 일에 헌신되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포로생활 동안 그들을 위축되게 했던 신앙의 침체와 회의, 절망이 사라지고 쓰러져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성전 건축을 위한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기 원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주권을 가지신 주님을 신뢰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리고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하여 2022년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인도자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위축되고 침체된 마음을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가족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2022년 주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봐어도

다 함 께

조금 빠르게

1.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봐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곁으며
 2. 이 눈이 보기에 어찌 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 대로 늘 믿으며
 3.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미쁘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어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후렴

걸어가 세 믿음 위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 세 믿음 위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기도문

다 함 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2년

설날 가정예배

- 예배를 준비하면서
- 가족 중 한 분이 예배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 명절 예배는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안에 거하는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 예배 시 돌아가신 가족을 위해 제사상을 차리고 절하는 일을 삼가 합니다.
- 예배를 다 마친 후에는 가족들이 서로에게 격려와 칭찬을 한 마디씩 나눕니다.

묵상기도

다 같이

신앙고백

다 같이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다 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 니 믿음의 반석도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 고 기쁨과 설움도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 가 한상에 둘러서

후렴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같이하니 한강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 라 임마누 엘 예수만
 먹고마 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라 임마누 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하 루